

보도자료



○ 자료제공 : 크롭라이프 코리아 (CropLife Korea) 대표
김태산 (02-2055-1663, 010-8748-1514)

생명공학작물재배면적 '96년 이후 100배 증가

- 수단, 쿠바 등 신생재배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이 생명공학 신기술의 사용을 주도하며 재배면적도 획기적으로 증가

(서울 2013년3월4일) - 2012년 전세계 생명공학작물 재배면적은 1억 7,000만 헥타르로 2011년보다 약1천만 헥타르가 증가하였다. 이는 생명공학작물 상업화가 처음 시작된 1996년 170만 헥타르에서 무려 100배 증가한 수치로 생명공학작물 기술이 가장 빠르게 채택된 작물 기술임을 보여준다.

농업생명공학 응용을 위한 국제서비스(ISAAA) 회장 클라이브 제임스가 4일 방한, 차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 GM작물실용화사업단(단장 박수철)과 크롭라이프코리아(대표 김태산)가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2012년 세계 생명공학작물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 28개국 1,730만명의 농민이 생명공학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중 90%가 넘는 1,500만 명이 개발도상국의 영세한 농민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공학작물의 급격한 성장세에 대해서 제임스 회장은 "생명공학작물이 주는 경제적, 환경적 이익 등 다양한 혜택이 농민들에 의해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생명공학작물을 재배하는 국가 중 개발도상국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 도상국은 2012년 처음으로 전세계 생명공학작물의 52%를 재배하여 48%를 재배한 선진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012년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생명공학작물의 재배 성장속도가 3배 빠르고 면적도 5배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은 6,950만 헥타르에서 생명공학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모든 생명공학작물의 평균 채택률이 90%를 보이면서 생명공학작물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단과 쿠바는 2012년 처음으로 각각 Bt 면화와 Bt 옥수수 재배를 시작해 생명공학작물의 재배국 대열에 합류했다.

제임스 회장은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과학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규제시스템의 결여가 생명공학작물의 채택확산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생명공학작물은 2015년까지 합리적 규제 완화를 통해 국제 사회의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미래 식량의 대안'으로써 역할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M작물실용화사업단 박수철단장은 GM작물은 기존 육종기술로 해결이 어려운 농업현장의 문제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최첨단 기술로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필히 확보할 첨단 기술이지만, 개발의 어려움과 철저한 안전성평가 및 심사절차를 거치므로 지금부터 개발을 시작해도 최종 실용화는 10년 후에야 가능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런 차원에서 2011년부터 GM작물개발을 위한 사업단을 출범시켜 미래 국내농업의 어려움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GM 작물육성 기술 확보와 함께 향후 글로벌 GM종자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차원에서 글로벌시장용 GM종자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농업생명공학 응용을 위한 국제서비스(ISAAA)

농업생명공학 응용을 위한 국제서비스(이하 ISAAA)는 생명공학작물에 관한 지식과 응용을 공유함으로써 기아와 빈곤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로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ISAAA의 회장 겸 설립자인 클라이브 제임스는 지난 30년 동안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서 생활하거나 근무하면서 생명공학 작물과 글로벌 식량 안보에 주요점을 두고 농업 분야 연구개발에 힘써왔다.

- 보고서 추가 정보: www.isaaa.org

크롭라이프 코리아(CropLife Korea)

크롭라이프 코리아는 생명공학작물 산업을 대표하는 협력기구로서, 생명공학작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제품 생산을 하고 있는 14개 국가의 작물보호협회와 6개의 글로벌 작물과학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크롭라이프 코리아의 회원사들은 농업생산성 증가에 있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기여하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선도역할을 하고 있다.

- 웹사이트: www.croplifekorea.org

- 연락처: 02-2055-1663 | taesan.kim@croplifeasia.org

차세대 바이오 그린21사업 GM작물 실용화 사업단

- **차세대 바이오 그린21사업**이란 국가농업생명공학 육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산·학·관·연 공동으로 실시하는 농업생명공학 공동연구개발사업을 말하며 이중 GM작물 실용화 사업단은 생명공학작물의 실용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 웹사이트: www.gmcrops.or.kr

- 연락처: 031-299-1780 | usdapark@korea.kr